

## 국문초록

### 재해와 일본의 사상 | 스에키 후미히코

투고일자: 2012년 4월 29일 | 심사완료일자: 2012년 5월 29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7월 31일

일본에서의 재해와 사상이라는 문제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은 최근 두 개의 커다란 지진재해를 경험했다. 1995년 한신·아와지대지진과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다. 이 두 재해가 일본의 사상·정신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신·아와지대지진은 같은 해에 일어난 옴진리교의 지하철 사린살포사건과 함께 사상계의 폐색적 상황을 낳았다. 더욱이 그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여 다수의 희생자를 낳았고 망자의 문제를 부상시키게 되었다.

둘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재해의 다발국인 일본에서 과거의 사상은 어떻게 재해를 받아들여 왔는가에 대해 사상사적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고대·중세에는 천견설·음양도설·재앙신설 등이 있었는데, 특히 신불(神佛)이 내리는 재앙이라는 설이 널리 수용되었다. 근세가 되면 천리와 인도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특히 안도 쇼에키는 천견설의 입장에서 출발하면서 인간의 행위가 자연에 영향을 미친다는 독자적인 설을 전개하였다. 일반 민중들 속에서는 거듭되는 자연재해에 대해 각종 속설이 등장했다. 특히 막말 안세이(安政)대지진(1855) 후에는 메기 그림이 대유행하였는데, 메기에 의탁하여 재해의 다양한 양상이 묘사되었다. 근대에 이르면 새롭게 기독교가 들어와, 관동대지진(1923) 후에는 우치무라 간조가 지진을 신의 벌로 간주하는 새로운 입장을 표명하였다.

**주제어:** 재해, 자연, 천견설, 음양도설, 재앙신설, 천벌론

### 재난과 이웃, 관동대지진에서 후쿠시마까지: 식민지와 수용소, 김동환의 서사시 「국경의 밤」과 「승천하는 청춘」을 단서로 | 황호덕

투고일자: 2012년 6월 10일 | 심사완료일자: 2012년 6월 22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7월 31일

시인 김동환은 관동대지진(1923) 후에 두 권의 장편서사시집을 출간한다. 「국경의 밤」

과 「승천하는 조국」이 그것이다. 사실상의 연작시집인 두 시집에 드러난 ‘재난’과 ‘이웃’에 대한 공포를 실마리로 하여, 나는 이 비평적 에세이에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제와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는 두 명제 사이의 아포리아에 대해 논하였다.

언어와 경험, 시적 화자와 시의 창작원리라는 차원에서 「국경의 밤」과 「승천하는 청춘」 사이에는 일종의 ‘연작성’이 존재한다. 관동대지진과 그에 이은 조선인 학살을 겪고 수용소에 유배된 조선인 유학생이 다시 조선의 북국(北國)에 돌아와, 그 상처를 ‘재기승’이라는 여진족의 후예 여성에게 토로하고 위안과 사랑을 얻으려 하나 실패하고 마는 과정이 두 연작시집을 통해 연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국경의 밤」이 북국의 겨울을 배경으로 여진족 후예의 처지에 피식민자 조선인의 처지를 가탁하고 있다면, 「승천하는 청춘」에서는 조선인의 처지가 전시의 적(敵) 혹은 포로로 규정되고 있는데, 이는 두 시집에서 산송장, 생번(生蕃), 산주검, 생령(生靈) 등과 같은 삶과 죽음, 법과 법외, 인간과 비인(非人)의 경계에 있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두 시집은 ‘이방인의 비명’을 시의 근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연작성을 갖는다.

특히 「승천하는 청춘」은 한국근대문학에서 처음으로 ‘수용소’의 경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시인은 이웃이 적으로 선언되고, 인간이 비인(非人)으로 선언되고, 언어가 비명(悲鳴)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감상적인 어조의 장시를 통해 장면화한다. ‘생번’으로 선언된 피식민자가 수용소 혹은 비상사태 속에서 ‘죽어도 죄가 되지 않는’ 생령(生靈)으로 취급되는 과정을 그려내는 시인의 시어는 거의 비탄을 넘어 점점 더 이미 죽은 자의 비명에 가까워진다. ‘산송장’(undead) 혹은 ‘산주검’(living dead)과 같은 경계 위의 생명이 토해냈을 언어를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근대 한국시의 언어가 탄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시집은 이웃과 재난 사이에 놓인 인간, 즉 비상사태 속의 인간과 그 언어의 운명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비명’과 ‘문학’ 사이의 오랜 친연관계를 재증명해준다. 법의 해제 상태에서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일 수 있기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제는 법이나 계율로서가 아니라 재난과 예외상태까지를 포함하는 궁극적 ‘윤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주제어:** 재난, 이웃, 김동환, 「국경의 밤」, 「승천하는 청춘」, 연작성, 수용소, 식민지, 피식민자, 비명, 생령, 산주검, 산송장, 사랑, 적대, 시의 근원

**계엄령에 대하여 : 관동대지진을 상기한다는 것** | 도미야마 이치로

투고일자: 2012년 5월 21일 | 심사완료일자: 2012년 6월 7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7월 31일

구제의 법을 내걸고 개입하는 국가는 동시에 구제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진압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전자는 법의 갱신으로, 후자는 그 갱신을 수행하는 불합리한 힘으로 존재한다. 위기관 이러한 힘이 현세화되는 사태가 아닌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틀을 통해 작년 3월 11일 이후, 대재해를 계기로 진행 중인 지금의 위기와 이른바 ‘오키나와문제’를 중첩시켜 논의하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성적으로 그려진 일본이라는 국가 시스템에서 볼 때 오키나와와 후쿠시마가 같은 희생자라는 유사성의 해설이 아니다. 법과 관련된 불합리한 힘에 대한 감지력을 통해 획득된 ‘바뀔 가능성이 있는 현재’ (“a transformative present”, R. Solnit)로, 굳이 말하자면 폭력의 예감과 함께 발견되는 미래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을 사고하기 위해 오키나와를 문제 삼는 것이다. 그와 관련된 논의의 기점으로서 1923년의 관동대지진과 거기에서 등장했던 계엄령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진재해나 계엄령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히로쓰 가즈오의 1926년의 소설 「떠도는 류큐인」에 초점을 맞췄다.

주제어: 계엄령, 오키나와 문제, 폭력, 관동대지진, 히로쓰 가즈오

**일본 재난영화의 내셔널리즘적 변용 : 「고지라」와 「일본침몰」을 중심으로** | 김려실

투고일자: 2012년 5월 15일 | 심사완료일자: 2012년 6월 8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7월 31일

이 글에서는 일본영화가 재해를 어떻게 포착/표상해 왔는가에 주목하여 재난영화의 내셔널리즘적 변용을 「고지라」 시리즈와 「일본 침몰」(1973, 2006), 「일본 이외 모두 침몰」(2006)을 중심으로 논한다. 특히 이 영화들은 현실에서 발생한 재해를 반영하면서 일본인의 근원적이며 일상적인 공포를 표상한다. 전후 일본의 괴수영화에는 표면화되지 않은 경우라 해도 핵전쟁이라는 잠재적인 재앙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다. 예를 들면 1954년 제5후쿠류호 사건을 반영한 「고지라」(1954)는 일본인에게 “생태학적 관점의 반핵영화”로 수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괴수가 퇴치시켜도 또 돌아온다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일본인의 잠재적 공포가 그만큼 뿌리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인플레이션과 오일쇼크로 일본경제가 위기에 처한 70년대는 일본영화계의 스튜디오 시스템이 몰락한 시기와 겹친다. 「일본 침몰」(1973)은 ‘침몰’이라는 비유를 통해 전후 체제 아래 성립된 기존의 일본사회가 붕괴할 것으로 예견한 고마쓰 사료의 전설적인 베스트셀러 SF를 원작으로 한다. 그러나 원작의 비판 의식은 영토와 민족을 본질적인 것

으로 상징함으로써 내셔널리즘의 회로에 갇히게 되고 뒤에 발표된 영화, 만화 버전 등에서 원작은 위기 극복의 민족서사로 변형되고 만다. 「일본 침몰」은 일본인은 다른 민족과 결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서구화된 신세대를 내셔널리즘의 회로 속에 포섭한다. 2006년에 리메이크된 「일본 침몰」과 패러디 「일본 이외 전부 침몰」(2006)은 일본의 우경화 현상과 맞물려 더 자책적이며 적대적인 내셔널리즘을 보여 준다. 이들 영화에는 주변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일본정부에 대한 ‘불신’과 양극화 사회에 대한 ‘불안’이 뒤얹혀 있다. 3·11 동일본대지진의 1주기가 지난 시점에서 그것을 재현한 영화가 생산되는 가운데 이 국가적 위기가 일본영화를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지 주목된다.

주제어: 재난영화, 내셔널리즘, 고지라, 일본 침몰, 일본 이외 전부 침몰

**‘지진 예보’의 꿈과 현실 : 일본의 지진 예측 연구에 관한 역사적 고찰** | 김범성

투고일자: 2012년 5월 20일 | 심사완료일자: 2012년 5월 29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7월 31일

이 글에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지진 예측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지진의 발생을 예측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일본 지진학의 여명기부터 존재한 희망이었으나 이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오히려 이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1923년의 관동대지진을 계기로 물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지진 연구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진 예측보다는 기초 연구가 중시되게 되었다. 그러나 지진 예측에 대한 열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지진학자들이 1962년에 발행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1965년도부터는 지진 예측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1978년에는 이와 관련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한편 일부 과학자들은 일찍부터 지진 예측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가 박약하다고 비판을 거듭해 왔고, 결국 1995년의 고베 지진이 계기가 되어 30년간 전개되어 온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에도 일본사회에는 지진의 발생을 조금이라도 빨리 포착하고자 하는 희망이 남아 있으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지진 예측의 문제는 과학과 사회, 정치가 얽혀 있는 영역을 가로지르고 있다.

주제어: 지진 예측, 지진학, 일본, 과학과 정치

**3·11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과 한국** | 전진호

투고일자: 2012년 5월 30일 | 심사완료일자: 2012년 6월 18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7월 31일

3·11 이후 일본은 원자력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였고, 독일 등 유럽국가들도 원

자력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3·11 이후 일본의 원자력정책은 근본에서부터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근거에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베스트 에너지믹스에 대한 재검토 및 원전의 안전강화 등이 있다. 즉 3·11 이후 일본은 ‘에너지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에너지 베스트믹스’(신에너지 기본계획)를 수립 중에 있다. 일본은 다양한 에너지원의 효율적, 효과적 이용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원전의존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3·11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포스트 후쿠시마의 에너지 표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1세기 한국 사회의 에너지 표준을 탈원전(선 환경, 후 경제)으로 할 것인가, 현재의 원전의존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선택지로서 환경과 경제를 병행하는 ‘최소 원전의 최대 안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토론과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3·11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탈원전의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지금과는 다른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힘을 얻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원자력예의 의존도가 30% 이상이며, 향후도 지속적으로 원자력발전예의 의존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이 탈원전의 정책 선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탈원전 혹은 원전 의존도를 낮추는 논의에 매우 소극적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3·11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도 할 수 있다. 3·11 이후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포스트 후쿠시마 담론’이 어떠한지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3·11의 교훈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주제어:** 후쿠시마 원전사고(3·11), 원자력발전, 원자력정책, 에너지정책, 탈원전

## 재해 재건과 창조적 관광정책 | 조아라

투고일자: 2012년 5월 17일 | 심사완료일자: 2012년 5월 29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7월 31일

이 글은 재해 부흥을 위해 관광이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또한 재해를 계기로 대두되는 ‘창조적인’ 관광 마지크쿠리란 어떠한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재해는 기존 사회가 지닌 다방면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1990년대 이후의 주요 재해 사례를 검토하고, 동일본대진재 발생 이후 지난 1년을 분석하여,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일본은 수차례 재해를 경험하면서, 다방면의 시행착오를 거쳐, 부흥 시나리오를 개선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

험에 주목하는 것은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동일본대진재 이후 창조적 관광부흥에 성공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오랫동안 지속된 자숙 붐, 장기적인 관광정책의 미흡, 장기화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그 전망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의 시행착오에 주목한다면, 관광부흥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동일본대진재, 재해관광, 오쿠시리, 한신, 니가타, 우스산

## ‘재일동포’ 호칭의 역사성과 현재성 | 정진성

투고일자: 2012년 5월 8일 | 심사완료일자: 2012년 6월 4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7월 31일

재일한인, 재일동포,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조선한국인, 재일, 재일코리안(コリアン), 재일한인, 재일교포 등 ‘재일-’ 이주자들을 지칭하는 어휘는 다양하다. 때로는 국가, 때로는 민족 혹은 양자를 표상하거나 지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호칭들의 의미와 혼란은 어디에 기인한 것일까?

본 연구는 재일동포 등의 호칭을 둘러싼 갈등의 지점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어휘 등장과 사용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당사자, 정부, 한국과 일본의 사회, 관련 연구자들이 이들에게 부여하는 호칭들의 의미, 호칭 등장의 역사적 배경, 호칭을 둘러싼 긴장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호칭들 속에서 민족과 국가가 표상되는 방식은 식민지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역사적 조건들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역사적 조건들은 한국과 일본 사회가 이들의 존재를 어떻게 표상하는지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위치 짓는 자기 해석의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각각의 호칭이 담고 있는 현재적 함의와 인식은 그 역사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동포, 재일한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

## 세계화와 일본의 기업별조합 | 우종원

투고일자: 2012년 6월 18일 | 심사완료일자: 2012년 6월 25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7월 31일

세계화의 진전 속에 일본사회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세계화에 대한 일본의 기업별조합을 대응을 분석하고, 기업별조합이 양극화를 저지하고 못한 이유와 그런 행동이 조합 자신에 초래한 귀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세계화에 대해 일본기업은 투자 확대나 이노베이션 강화보다는 코스트삭감을 가속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기업별조합은 스스로 기업통치의 한 축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행동을 용인하고,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도 적

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영 및 조합의 이런 행동은 역설적으로 일본기업의 강점이었던 ‘현장력’을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A사의 사례에서 보여 주듯 고용삭감 속에서 비정규직 증대와 성과주의 임금관리의 강화는, 현장력의 주요한 요소인 여유를 직장에서 빼앗는 한편으로, 직장내 커뮤니케이션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업원주권’의 패러독스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전(全)노동자의 연대와 사회적 공정”이란 관점만으로 기업별조합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거나 그것을 유도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중업원주권’이 역설적으로 자신의 기반인 ‘현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분명해질 때 기업별조합 스스로 행동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주제어:** 세계화, 기업별조합, 중업원주권, 현장력

## 영문초록 Abstract

### Disasters in Japanese Intellectual History \_SUEKI, Fumihiko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discuss the issues of natural disaster in Japanese intellectual history from two different viewpoints.

First, I would like to investigate the recent intellectual situations in Japan surrounding two large earthquakes: the one occurred in western part of Japan in 1995 and the other was in the eastern part of Japan in 2011. After the disaster in 1995, a sense of impotence prevailed in Japan. After the disaster in 2011, the issues of the dead became an important subject in the intellectual world.

Second, I would like to reflect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thought surrounding natural disasters. In the ancient and medieval periods, the idea of punishment from heaven, yin-yang theory and the idea of divine wrath were the main ideas on the causes of disasters. In particular, the idea of divine wrath was the most popular. In the early modern period, the relations between nature and human activities became an important topic in the intellectual world. Ando Shoeki(1703~62) was the most exemplary philosopher who investigated the cause of the natural disaster which he himself experienced in Tohoku district. In the world of popular belief, trembling of a large divine catfish was thought to be the cause of earthquake. In the modern period, Christianity introduced a new idea of “punishment from God” as the cause of natural disasters.

**Keywords :** natural disaster, nature, punishment from heaven, yin-yang theory, divine wrath, punishment from God

**Disaster and Neighborhood, from Great Kanto Earthquake(1923) to Fukushima Disaster(2011): Colony and Camp, A Contemplation from**



# Continuity of Kim Dong-Hwan's Two Narrative Poems *Night of Borderline & Ascension of Youths* \_ HWANG Ho Duk

In the aftermath of Great Kanto Earth Quake(1923), the poet Kim Dong-hwan published two long narrative poems: "Night of the Border" and "Homeland's Ascension". These two pieces form a sequence. Taking on the theme of terror in "disasters" and "neighbors" that emerge from these two works, this critical essay discusses the aporia that is situated between the two propositions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and "Man is a wolf to other men."

In language and experience, and in the aspect of the poetic speaker and the creative principle of poetry, there exists a sequential continuity from "Night of the Border" to "Youth's Ascension". In these two poems, the protagonist, a Korean student in Japan, survives the Kanto Earthquake and the slaughter of Koreans by their Japanese neighbors in its aftermath. The student ends up incarcerated, and once released from a concentration camp, he returns to Korea's northern countryside, where he meets a woman named 'Jae Gah-seung', a descendant of Yeojin people, to whom he tells his story in hopes of gaining her sympathy and ultimately her love. These two pieces tell the story of his failure to do gain either.

There are two distinct approaches to a continuous, developing theme in each of these respective works. "Night of the Border" is set against the winter of the northern countryside, and deals with the plights of the colonized and the descendant of Yeojin people. "Youth's Ascension" shows how the Koreans were designated as enemies or prisoners of war by the Japanese in wartime. In these two narrative threads, the undead, the barbarians, the living dead, and the living ghosts appear as existential expressions of the borders between death and life, law and outlaw, and human and inhuman. Both poems form a continuity in that their source of poetic imagination is located in 'the howl of the outsider.'

In particular, "Youth's Ascension" is the first work of Modern Korean Literature that directly addresses the experience of concentration/prison camps. In a long narrative form full of emotional diction, the process of how the poet is declared as the enemy of his neighbors, how humans are declared to be inhuman, and how a language descends into a howl

are detailed. The colonized is declared as 'a barbarian,' discriminated as a living ghost "whose murder would be a crime" in a concentration camp or in an emergency, and the poet's language crosses the boundary from an anguished cry and descends closer to the howl of the dead. In this process of recording the language that were cried out by a living person on the border between the undead and/or the living dead, modern Korean poetry's language was given birth.

The two works prove once more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howl" and "literature" in that it draws the fate of language and humanity in an emergency, such as in the example of the human caught between his neighbors and disasters. In the destruction of law and order, a man can be a wolf to other men, and "loving one's neighbor as one loves oneself" must be understood not as a law or a religious precept but as the ultimate ethical imperative that also applies in the event of disasters and other calamities.

**Keywords** : Disasters, Neighbors, Kim Dong-hwan, "Night of the Border", "Homeland's Ascension", continuity, Camp, Colony, The colonized, Howl, Living ghost, Living Dead, Undead, Love, Hostility, Root of Poetry

## About the Martial Law : The Meaning of Recalling Great Kanto Earthquake

\_ TOMIYAMA, Ichiro

A state that intervenes in civil affairs in the name of relief act is also a state that monitors and suppresses those who do not ask for help. The former amends the law, while the latter is the power that carries out those new laws outside its function. Is crisis not the situation when these powers materialize themselves? With this question in mind, I will try to analyze the ongoing crisis that was triggered by the natural disaster on March 11, together with so-called "Okinawa issue." It is not to explain the similarities between Okinawa and Fukushima as "victims" of the state machinery of "Japan" in the way of understanding them. I have picked the "Okinawa issues" in order to think about how people can find a sense of attachment in one another in the "transformative present" (R. Solnit), which can be attained through the sensitive ability toward horrendous power of law, as well as in the future found within the anticipation of violence. In so doing,

I paid attention to the martial law that appeared in the aftermath of the 1923 Great Kanto earthquake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discussion. The focal point of the study is Hirotsu Kazuo's novel, *Samayoeru Rukyuujin*, published in 1926, which seems to have little relevance to the earthquake or the martial law itself.

**Keywords** : Martial Law, Okinawa Issue, Violence, Great Kanto Earthquake, Hirotsu Kazuo

#### **Nationalistic Changes of Japanese Disaster Movies : Focusing on *Godzilla* and *Japan Sinks*** \_ KIM Ryeo Sil

In this paper, I examine nationalistic changes of Japanese disaster movies, *Godzilla*(1954), *Japan Sinks*(1973, 2006), and *The World Sinks Except Japan*(2006) focusing on how Japanese cinema has captured and represented disasters. These movies especially represent Japanese fundamental and ordinary fear reflecting actual disasters. Japanese monster film is involved with fear for the potential catastrophe, a nuclear war even if it does not come to surface. For example, *Godzilla* reflecting the Fifth Hukuryumaru incident of 1954, an incident of radiation exposure, is accepted as “anti-nuclear movie in the ecologic point of view.” However, the impossible eradication of *Godzilla* and its return mean that Japanese potential fear is deep-rooted under American nuclear umbrella. On the other hand, inflation and the first oil shock caused the economic crisis in 1970's and it led to the crash of studio system. *Japan Sinks* is based on the bestselling science fiction written by Sakyo Komatsu, who predicted existing Japanese society established under the postwar system would be collapsed, by using “sinking” as a metaphor. However, by positing that the land and the people have the intrinsic value, the critical consciousness of the original is stuck in the nationalistic circuit. In the film version and comic version, the original is changed into an ethnic narrative of how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Japan Sinks* turns westernized young people over to the nationalistic circuit through the logic that the Japanese can overcome whatever the crisis is because the Japanese is crucially different from other people. Remake version of *Japan Sinks* and *The World Sinks Except Japan* based on a parody of the original fiction, made in 2006, show

more autistic and hostile nationalism. In the movies, ‘fear’ for being isolated from its neighbouring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deep ‘distrust’ of the government, and ‘anxiety’ over the polarized society are interwoven. Since the first year anniversary of 3.11 the great east Japanese earthquake has passed by, we already have several films which reflect it. Now it is time to think over how this national crisis has changed and will change Japanese cinema.

**Keywords** : disaster movie, nationalism, *Godzilla*, *Japan Sinks*, *The World Sinks Except Japan*

#### **A Historical Review of Earthquake Prediction in Japan** \_ KIM Boum Soun

This paper takes a historical approach in its review of the scientific quest for earthquake prediction in Japan, and the socio-political terrains where these investigations were deployed. When seismology was established in Japan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problem of earthquake prediction interested some forerunners of the newborn science. However, as seismicity is located underground, investigations proved difficult and predictions could sometimes cause social panic. In the aftermath of the Great Kanto Earthquake of 1923, a methodological turn to geophysics led Japanese scientists to make basic rather than practical investigations. It was in the 1960s that the desire for prediction was revisited, promoting a new national project crossing boundaries between scientific and socio-political realms. While criticisms of the “inability” to realize the goal have continued, Kobe's tragedy of 1995 stimulated critics of this branch of science to emphasize basic research, similar to what their predecessors had argued seven decades ago. Thus, the history of earthquake prediction in Japan elucidates how scientific and socio-political cultures have interacted on the subject of natural disasters and their mitigation.

**Keywords** : earthquake prediction, seismology, Japan, science and politics

#### **Japan's Nuclear Energy Policy and Korea after 3.11** \_ JEON Jin Ho

Japan after 3·11 has declared a comprehensive re-examination of the nuclear energy policy, and European nations like German are also making

as much haste as possible for a policy change toward the direction of nuclear safety as the utmost priority. Japan's nuclear energy policy after 3.11 has changed from its fundamental principles, and the basis of the changes includes not only the re-examination of nuclear energy development but also of the most efficient energy-mix and safety reinforce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Explicitly, Japan is in the process of re-examining the "Energy Master Plan" in all aspects so as to setting up a new "Energy Best Mix"(New Energy Master Plan), and aims to lower nuclear dependence in a long term with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use of energy resources.

The lesson to us from 3.11 is that, as is in Japan, there should be earnest national debates about the energy standard after the post-Fukushima era. That is, should we point toward the post-nuclear plant as the energy standard in the 21st century of Korea after the Fukushima nuclear catastrophe? Should we otherwise maintain the paradigm of present nuclear dependence as it is now? Should we move on to a new paradigm of 'Minimum Nuclear Plant, Maximum Safety' in parallel with environment and economy as the third choice? There must be exhaustive debates and national conformities with those issues.

After 3.11, Korea has robustly involved with debates on 'post-nuclear energy dependence', and the necessity of different energy policies has been aggressively brought up. As Japan, Korea's dependence on nuclear energy is more than 30%, and plans to consistently increase the dependence on the nuclear energy generation in the future. Despite the fact that some European nations like German, Switzerland, etc. have decided a policy of post-nuclear energy, Korea has so far been neglected in the discussion of post-nuclear energy or less dependence on nuclear energy. This perspective states that Korea remains in the phase prior to 3.11. After 3.11,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level of conformity with the way in which 'Debate on Post-Fukushima' should point to for Korea, must be the utmost imperative task that we can learn from the 3.11.

**Keywords** : Fukushima Nuclear Accident 3·11, nuclear power generation, energy policy, nuclear energy policy

## Disaster Recovery and Creative Tourism Policy \_CHO Ara

This paper began by questioning how tourism might contribute to the disaster recovery in Japan, and asking what the "creative" tourism of Machizukuri is in light of its emergence in the disaster's aftermath. A disaster can be an opportunity for the existing society's many-sided problems to be directly addressed and resolved. This paper examines the precedent natural disasters and their relief/recovery efforts after the 1990s, and analyzes the first year of recovery since the 2011 Tohoku earthquake and tsunami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order to look for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raised above. Japan has experienced many natural disasters, and have dealt with many trials and errors in its recovery efforts, and in doing so Japan has reformed its recovery scenario in every turn. Therefore, there is a good reason for understanding the Japanese experience in their disaster recoveries. Will Japan succeed in its creative tourism recovery after the earthquake? In the present moment, the long-lasting popularity of self-restraintism among the Japanese populace, along with the stagnant inadequacy of the government's tourist policy, and the seemingly unending Fukushima nuclear accident do not brighten the future outlook. However, if the precedent disaster recovery efforts' trials and errors are considered and how they have improved in their efforts every time, the possibility of Japan's recovered tourism still remains open in the future.

**Keywords** : Great East Japan Earthquake, disaster tourism, Okushiri, Hanshin, Niigata, Mount Usu.

## The Historical Consequence and Contemporary State of Phraseology Concerning Koreans in Japan \_JEONG Jin Seong

Throughout modern history, Koreans residing in Japan have been called by names such as Japan-residing Hankookin, Japan-residing Joseonin, Japan-residing Overseas Compatriot, Japan-residing Hanin, Japan-residing Hankook Joseonin, Japan-residing Korean, etc. These names have been given either by the Korean-Japanese themselves, the Korean or Japanese people, as well as the governments of Korea and Japan. These names often stress their affiliation with state, nation, or sometimes both. However, in

some cases, the names, as given by the Korean-Japanese themselves, show an attempt to hide or delete such affiliations. The current paper examines the reasons behind such attempts and the phraseology of the terms that are used.

The author investigates the points of conflicts and disputes in the phraseology in the context of their historical consequence and contemporary status. This work will show how various ways of phrasing the Korean-Japanese identity have been closely connected to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conditions on Korean Peninsula. Such political and historical conditions have decided how Korean and Japanese people and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represented Koreans in Japan. These conditions, in turn, affected the perception of self-identity among the Koreans in Japan. Hence, the implications of current status of phraseology should also be duly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its historical consequence.

**Keywords :** Japan-residing Hankookin, Japan-residing Josonin, Japan-residing Overseas Compatriot, Japan-residing Hanin, Japan-residing Hankook Josonin, Japan-residing Korean

#### **Globalization and Enterprise Unions : The Paradox of 'Employees as an Important Stakeholder'** \_ WOO Jong W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he polarization made rapid progress in Japan. This paper examines how the Japanese enterprise unions dealt with the impact of globalization, why the unions could not stop the polarization, and what the result of union behaviors to the unions themselves would be. Japanese Companies chose their strategy which was not accelerating invest or innovation, but reinforcing cost-cutting, which brought about the decrease of regular workers, the increase of irregular workers, and the earnings differentials as a result. The enterprise unions that comprised with stockholders important stakeholders of corporations tolerated this kind of behavior. However, the cost cutting strategy and the following practices of employment/compensation management might lead to the erosion of workshops' Kaizen-Power through putting an obstacle to smooth communication and taking workshops of time to carry out the Kaizen plans, as seen in the case study of A-Company.

The Paradox of 'employees as an important stakeholder' implies: It is not enough to blame the 'egoistic' behaviors of enterprise unions on the viewpoint of solidarity and justice. Contrarily, it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reality that the behaviors might weaken the Kaizen-Power of workshops, the very base of employees as an important stakeholder.

**Keywords :** globalization, enterprise unions, employees as an important stakeholder, Kaizen Power of workshops